

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 http://www.motie.go.kr		보도설명자료		 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	
보도일시		2015. 09. 09.(수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배포일시		-	담당부서	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	
담당과장		권중각(02-731-9660) 김동주(044-203-4530) 김용선(042-481-5168)	담당자	조경옥 서기관(02-731-9611) 배승희 주무관(044-203-4538) 박현수 서기관(042-481-5423)	

**「창조센터 특허 개방 출발부터 엇박자..공개
특허 10만여건 관리 뒤죽박죽」
제하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**

□ 언론사명 : 파이낸셜뉴스

□ 보도일 : 2015. 9. 9.(수)

□ 제목 : 「창조센터 특허 개방 출발부터 엇박자..공개 특허 10만 여건
관리 뒤죽박죽」

□ 보도요지

-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대기업이 개방한 특허가 총 10만 여건에 이르지만 정보가 센터별로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짐
- 개방된 특허의 대부분이 유상특허라고 지적

□ 설명내용

◆ 보도내용 중 혁신센터를 통해 개방된 특허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

-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개방된 지원기업의 특허는 각 센터별로 구축된 IP존과 지원기업의 특허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공동으로 활용 중에 있으며,
- 충북, 대구센터 등에서는 특허 전문가가 지역 중소기업에 찾아가서 특허보호 및 특허사업화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음

※ 8월말 현재 혁신센터 IP존을 통한 특허상담 775건, 특허이전 150건

-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및 특허청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개방된 특허정보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 (IP-Market) 등을 통해 개방된 특허를 통합 제공·관리하는 방안을 이미 마련 중에 있으며, 금명간 관련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계획임

◆ 보도내용 중 혁신센터를 통해 개방한 특허정보가 대부분 유상이라는 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

- 일반적으로 유상특허는 해당 기업의 최신기술로 기술가치가 높은 만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로열티를 지불하더라도 이러한 우수한 특허를 이전받는 것이 경쟁력 있는 신제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음.
- 이에 따라 개방 특허의 활용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유·무상 특허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